

따뜻한여름

2025년 하반기호
NO.158

희망을



더 스토리

2025 W기금모금캠페인 온길따라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 Brave Changes

만나고 싶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
여성 예술인 박소현 감독

현장 속으로

자립준비 여성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미래여성 NGO 리더십 장학사업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임팩트 조성사업



성예랑
아시아위민브리치
두런두런 상임이사

더 많은 여성들을 위한 비빌 언덕이 되길

한국여성재단이 있는 서교동이나 홍대입구역 근처에 볼 일이 있어 갈 때면 큰언니네 동네에 가는 기분이 듭니다. 어릴 적 동네 밭상스러운 큰 어깨들이 지나갈 때, 큰언니가 옆에 있으면 언니의 팔짱을 끼고 혼자 외진 골목을 걸으며 주눅 들었던 가슴에 보상받는 것 같이 든든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여성재단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이화리더십 개발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재단이 주관하고 이화가 운영하던 <이화-유한김벌리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과정>을 통해 서였습니다. 유한이라는 낯설지 않은 이름의 기업은 여성들과 주부들에게 여러 생활용품으로 꽤 익숙하지만, 유한김벌리라는 다국적 기업이 NGO 기관과 여성활동가를 지원하고 있었다는 건 참으로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비록 <이화-유한김벌리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과정> 운영에 참여한 것은 2년간이었지만, 이화를 떠난 후에도 열정과 신념을 가진 사람이 거의 전부인 NGO 기관들에게 활동가 역량 강화가 핵심 자원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에, 반짝거리는 NGO 여성활동가를 만나면 어김없이 유한김벌리와 한국여성재단을 떠올리며 우리 동네 제일 튼실하고 맛있는 감나무 자랑하듯 이 과정을 알려주곤 합니다.

여성 소상공인 경제적 자립 지원사업 'My Future, My Business'를 통해 세계 최대 종합 금융지주회사인, 자본주의의 첨탑 JP Morgan 또한 한국여성재단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설렘으로 JP와의 첫 회의를 준비하던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회의 내내 JP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의견, 열린태도, 그리고 '여성소상공인경제적자립'에 대한 진정성은 감동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면 '기부기업'는 더 이상 기부기업이 아니라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동반자를 만나면 사업은 '일이 아니라 신나는 '사명'에 가까워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지난 수년간 한국여성재단을 통해 <아시아 여성재단들과의 여성 자원동원 공동 프로젝트>, <2024 여성회의 - 페미니즘 x기후정의: 연결하고 연대하기>, <2025 여성공익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임팩트조성사업> 등 여러 겹의 만남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말처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 한국여성재단은 여러 겹의 놀라움이었습니다. 재단의 몽클한 시작에 놀라고, 한국 여성사에 대한 기여에 놀라고, 사업의 다양함에 놀라고, 그 규모와 신선함에 놀라며, 마침내 그 스케일이 한국의 구석구석에서부터 세계의 여성들과 닿아 있다는 사실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여성재단들이 바라보는 한국여성재단에 대한 존중과 평가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라는 희망을 공통 분모로 삼아 사람과 기관과 자원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기금을 통해 개인의 현재를 바꾸기도 하고, 기관의 미래를 만들기도 하며, 내일은 꿈을 꾸어야 하더라도 지친 오늘에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의 역사와 사업이 놀라움이라면, 그 방식은 존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간 지켜본 한국여성재단이 자원을 분배하는 원칙과 방식은 유연하면서도 투명합니다. 사업의 디테일에는 정성과 촘촘함이 배어있고, 어떤 자리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당당합니다. 재단을 통해 만난 사람과 사업, 인연과 배움은 끈처럼 일직선으로 이어진 연결이 아니라, 여성주의적 씨실과 날실로 촘촘히 엮여 정성스러운 운기를 만들어내는 타피스트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십 년간 제가 만난 한국여성재단은 딱딱한 붉은 벽돌의 건물에서 헌신적인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리고 따라쟁이 동생에게 든든한 큰언니로 바뀌었습니다. 큰언니 집이 리뉴얼을 하고 난 이후, 언니집에 더 자주 가게 됩니다. 집이 환해져서 그런지, 갈 때마다 기분도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따스하고 당당한 언니가 참 자랑스럽고, 멋진 내 언니가 더 많은 여성들에게 비빌 언덕이면 좋겠습니다.

그 당찬 언니가 내일 또 어떤 놀라움으로 손을 내밀지 기대해 봅니다.

Contents

여는 글	더 많은 여성들을 위한 비빌 언덕이 되길 성예랑 아시아위민브리치 두런두런 상임이사	02
더 스토리	2025 W기금모금캠페인 : '온길따라' 이어진 응원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	04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 Brave Changes : 지속 가능하며 미래지향적인 성평등을 위해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을 지원합니다	08
현장 속으로	자립준비 여성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 서로를 비추며, 자립으로 나아갑니다	12
	미래여성 NGO 리더십 장학사업 : 연대와 변화의 리더십을 키워갑니다	15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임팩트 조성사업 :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18
만나고 싶었습니다	국내 최초 여성학 교수, 장필화 이사장 :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재단 장필화입니다	21
	다큐멘터리 <네가 혼자 있는 동안에> 박소현 감독 : 여성 예술인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24
재단소식	재단활동 2025년 7-12월	27
	기부자 명단 2025년 7-12월	30
	수입과 지출 2025년 1-12월	32

- 후원 농협 369-17-005283 / 국민 079-01-0405-971(한국여성재단)
- 홈페이지 www.womenfund.or.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kwomenfund

- 인스타그램 @womenfund
- 유튜브 www.youtube.com/kwomenfund
- 해피빈 happylog.naver.com/hlog/womenfund/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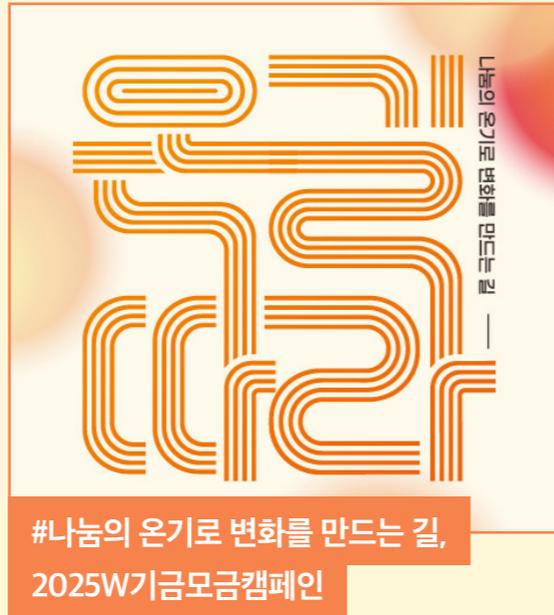
말들에게 희망을 2025년 하반기호 NO.158

발행인 장필화 편집인 노지은 기획·편집 나눔기획팀 발행일 2026년 2월 발행처 (재)한국여성재단 대표전화 02-336-6364 팩스 02-336-6459 주소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디자인 그래픽조선

2025 W기금모금캠페인

‘온길따라’ 이어진 응원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

더 스토리



한국여성재단은 매년 연말, 재단의 활동이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과 나눔으로 함께하는 W기금모금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5년 연말에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W기금을 알리는 캠페인과 더불어 한 해 동안 재단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나누는 기부자 초청행사 ‘온길따라’를 진행해 기부자, 파트너분들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2025 W기금모금캠페인의 타이틀은 ‘온길따라’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함께해주신 기부자, 파트너분들과의 따뜻한 동행에 대한 감사를 담았습니다. ‘나눔의 온기로 변화를 만드는 길’이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분들의 응원과 참여를 기다리는 기대 또한 담겨 있습니다.



11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에서 W기금모금 캠페인을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대중과 나눴습니다. 재단의 다양한 사업 중에서 여성생태계지원사업, 젠더폭력대응사업, 싱글맘지원사업, 그리고 W기금을 각각 슷츠 영상으로 구성해 활동의 의미를 전하고, 귀찮 작가님과의 협업으로 재단활동과 W기금을 테마로 한 인스타툰이 제작되어 SNS상에서 많은 분들과 나눴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단의 활동과 기부자 이야기, 기부자초청행사 온길따라를 알리는 소식이 카드뉴스 시리즈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SNS 이벤트를 통해서 약 1,500여 명 분들이 W기금을 응원하는 댓글로 함께해주셨습니다.

#따뜻한 동행과 만남, 온길따라

지난 12월 9일 화요일 저녁, 명동에 소재한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배우 손수현 홍보대사의 사회로 기부자 초청행사 온길따라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기부자 초청행사는 사전 케이터링 시간 후에 1부 장필화 이사장의 환영인사, 사업 현장과 기부자 이야기를 듣는 토크와 2부 특별한 공연 및 참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벤트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은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응원하며 동행해주는 기업 및 개인 기부자 분들과 파트너 단체들 덕분에 재단은 성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여성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여성 역량강화와 인권 향상을 위한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기후정의와 돌봄이슈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돌봄의제 확산을 위한 지원을 새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으로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감사와 기대를 전했습니다.

1부 토크에서는 한국여성재단의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여성운동생태계 조성사업 <Brave Changes>의 이미경 컨설팅 위원, 젠더폭력대응사업 파트너 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제주여민회 고은영 위원장, 그리고 W기금으로 함께하는 나눔파트너, 기부기업 커넥플의 박지희 대표가 사업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와 활동과 나눔의 의미 등을 전해주었습니다.



**여성운동생태계 조성사업
<Brave Changes> 이미경 컨설팅위원**

“전국의 여성단체들을 찾아가 토론토 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함께 지혜를 모아가며 응원하는 정말 가슴 뛰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Brave Changes> 컨설팅위원으로 함께 하면서 한국의여성단체들의내공을다시금확인하였고,여성 운동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우며 감동을 받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젠더폭력 대응활동 지원사업
제주여민회 고은영 위원장**

“시골에서 일어나는 일상 속 젠더폭력을 인식하고 대응력을 키우는, ‘일상의 기반’을 단단히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상이 바뀌는 경험이 제주를 넘어 더 많은 읍면 지역 여성들에게 확장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의 젠더폭력 대응활동 지원은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W기금 기업기부
커넥플 박지희 대표**

“한국여성재단이 지금처럼 여성의 가능성을 이어주는 든든한 플랫폼으로 계속 자리하길 기대합니다. W기금이 확대되고 기부자,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더 큰변화를 만들며 서로를 연결하는 장이 더욱 확장 되길 바랍니다. 지속은 결국 함께여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2025년의 감사,
2026년의 기대**

2025년 2,207명의 기부자님들과 47개의 기업 및 단체 기부처들이 모아주신 온기가 재단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135개 전국 여성공익단체들의 활동과 97,747명의 지원사업 참여자들에게 전해져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25W기금모금캠페인과 기부자 초청행사 ‘온길따라’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2025년 한 해 동안 재단의 활동을 응원하고 기부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도 다양한 여성들이 마음껏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향해 더욱 힘차게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부자, 현장 파트너, 참여자 분들이 함께 걸어온 길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W기금 나눔계좌
농협 317-0003-6724-91
한국여성재단
기부문의
02-336-6463
나눔기획팀

글 - 나눔기획팀 박정아, 신을진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 Brave Changes

더 스토리

지속 가능하며 미래지향적인 성평등을 위해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을 지원합니다.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 Brave Changes 사업은 2023년부터 여성운동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성운동 단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며, 여성운동의 당면한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확산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성운동 지원사업, 여성단체 코어지원사업, 콜라보 지원사업 세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며 매년 약 20 여개의 단체를 선정하여 총 10,000명의 참여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운동의 아젠다 발굴,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장기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네트워킹 연대 활성화를 통해 여성운동 생태계의 다양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함께 만든 변화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성운동 지원사업

중·장기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성평등 아젠다를 개발·확산하는 한편, 정책 기반 마련과 문화적 파급력이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운동 지원사업은 3년 연속사업이며 1차년도는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2차년도는 실질적 실행과 성과를 만드는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여성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제와 접근방식을 통해 성평등 담론을 확장하였습니다. 젠더폭력, 사이버성폭력, 백래시, 자원재활용 여성노동자, 돌봄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 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회

참여 단체

담당자들 이야기

여성환경연대

“1년이라면 실태조사와 문헌조사로만 끝났을 사업이지만 3년 덕분에 현장 방문, 여성노동자 인터뷰, 전시 및 캠페인까지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어요.”

서울여성회

“3년이라는 시간 덕분에 연대 구축이 가능했어요. 1년차에 32개 단체에서 시작해서 현재 100개 이상 단체와 연대하게 되었어요.”

젠더교육플랫폼호재

“1년차였다면 단순 연수로 끝났겠지만 3년 덕분에 연수 후 현장 과제 제출, 피드백, 코칭까지 이어졌고, 장기적인 기획하에 '전환의 남성성'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시도하고 확장할 수 있었어요.”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단체 언어로 표현하자면 '혜매는 과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1년 사업으로는 실태조사나 토론회 후 더 확장하지 못했을 내용을 3년 지원을 통해 연속적이고 규모 있게 실행할 수 있었어요.”

여성단체 코어 지원사업

여성운동 단체와 조직력 강화를 위해 조직 운영 및 관리, 활동가 역량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단체들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지속 가능성과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체 내부의 역량 강화를 넘어 장기적으로 여성운동 전반의 지속성과 자생력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단체 중 언니네트워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활동가는 그냥 버티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언니네트워크는 여성친화적 환경 형성과 여성주의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모든 종류의 성적 차별 및 억압이 종식된 새로운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주의 문화활동 단체입니다.



내부 역량 세미나



기획단 회의

인건비와 워크숍 지원을 통해 단체의 일상 활동을 정비하고 활동가의 기획 역량을 강화하여 회원 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다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상근 활동가의 인건비가 안정되자 단체 운영의 활기가 생기고 활동가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자신감이 향상되었으며 반복적인 일상 업무와 활동 속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가려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원들과의 관계에서도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관계로 변화하며 참여자가 동료가 되는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코어 지원사업을 통해 활동가들이 쉼과 학습의 시간을 되찾고 내부 세미나, 디자인 교육, 독서모임을 통해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 자아 성찰과 실험의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체의 재정비를 통해 회원들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단단해져 내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콜라보 지원사업

여성운동의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단체들이 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네트워크 및 조직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단체들이 협력하여 학습 프로그램, 교육·세미나, 네트워킹, 워크숍 등을 개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단체 간 협업이 만들어 낸 변화와 지역사회에서 상호 학습과 공동 성장의 기회를 확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도시와 농촌, 여성들의 손길로 피어난 새로운 연결

“기후 위기 시대, 연대로 있다.”

서대문공동체라디오는 서대문 사람들이 직접 만들고, 서대문 사람들이 듣는 주민 참여 미디어입니다. 콜라보 지원사업을 통해 서대문공동체라디오는 자본-여성-기후 연구세미나와 신여성과 함께 먹거리, 기후 위기, 생태, 돌봄을 주제로 공동 학습을 진행하였고 교류의 장을 열었습니다. 각자의 영역을 넘어 도시 여성과 농촌 여성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여성운동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여성주의적 시선에서 먹거리와 농업, 생태를 주제로 세미나를 통해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언니네 텃밭 봉강공동체를 방문하고 도시 여성과 여성 농민이 만나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귀한 경험을 나누었으며 팟캐스트 콘텐츠 제작을 하였습니다.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은 참여 단체들에게 단체 내부의 변화와 지역사회 확산 및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더욱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운동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고 확장해가는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세미나



언니네 텃밭 봉강공동체 방문

여성운동 생태계 조성사업은 참여 단체들에게 단체 내부의 변화와 지역사회 확산 및 협력과 연대의 가치를 더욱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운동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고 확장해가는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글 - 나눔기획팀 성예현

자립준비 여성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서로를 비추며, 자립으로 나아갑니다

We are Future Makers

임팩트 리포트 라운드테이블



We are Future Makers
멘토링 프로그램

현장 속으로

자립을 준비하는 시간에 필요한 것들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청년에게 '자립'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순간일 수도, 혹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샤넬코리아가 지원하는 자립준비 여성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We are Future Makers>(이하 WFM)는 이 물음에서 출발해, 보호 종료 이후 사회로 나아가는 여성들이 자신의 속도와 방식으로 미래를 그려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온 사업입니다.

매년 선발된 자립준비 여성청년들에게 500만 원의 개별 자립지원금, 진로·자립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서로를 지지하는 네트워크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신을 돌보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며, 삶의 기반을 차근차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Impact

더 이상 내가 누구인지 숨기지 않고, 나의 모습 그대로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드러내지 않으려고 거짓말한 순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답게 진짜 살아보고요."

나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멘토예요. 많은 지원을 받은 만큼, 저도 동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을테니까요.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봐야죠."

다른 사람이 시켜서가 아닌, 진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찾아 도전하고 있습니다.

"차마 놓지 못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나의 진로를 설계하고 찾아가고 있어요. 누군가가 시킨 것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있어요."

나의 삶의 방향을 설계하고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립 지원 프로그램 맴들지 않아요. 그건 이제 필요한 친구들에게 기회가 가야죠. 이제 저는 제가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잖아요. 자신 있어요. 저 잘하고 있어요."

별이 되기 위한 걸음, 빛을 나눈 여정을 기록하며

2025년 발간된 <We are Future Makers>임팩트 리포트는 WFM 1기부터 3기까지의 운영 과정과 성과를 다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임팩트 리포트는 WFM의 여정을 '자립을 향하는 별의 탄생'에 비유합니다. 보호 체계를 떠나 낯선 우주에 놓인 청년들이 WFM이라는 안전한 공간 속에서 서로 연결되며 자신만의 빛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자립이 결코 고립된 상태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또한, WFM의 핵심가치를 '안전과연대', '신뢰', '환대'로 정리하며, 참여자들의 변화가 어떤 조건과 맥락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짚고 있습니다. 자립청년과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이중적 취약성에 놓이기 쉬운 참여자들에게, 안전한 공간과 존중 받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어떤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줍니다.

기록에서 질문으로, 질문에서 확장으로

11월 7일, 한국여성재단에서 열린 WFM 임팩트 리포트 라운드테이블은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님의 인사말로 문을 연 라운드테이블에서는 WFM 3기를 수료한 조랑말과 가나도 함께 참여하여 WFM의 경험을 나누고 생생한 자립지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주었습니다. 자립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유관 기관의 관계자 분들이 참석하여 서로 비슷한 고민을 나누며, 자립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기획 및 운영에 참여한 이충한 하자센터 부장님, 조영미 교수님, 서현선 교수님과 4기 프로그램 모니터링에 참여한 박희진 연구원님, 멘토로 참여해주신 허진이 작가님이 심도 있는 토의를 이끌어줄 전문가 패널로 라운드테이블에 함께해주셨습니다.



토의 끝에 자립은 단기간에 완성되는 목표가 아니라, 실패와 흔들림을 포함한 과정 그 자체라는 점, 그리고 그 과정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곁을 내어주는 구조가 중요하다는데 공감감이 모였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은 따뜻한 공감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열망이 담긴 열띤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공식 일정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이어진 대화들은, 이 논의가 단지 하나의 행사로 마무리되지 않고, 현장을 움직이는 질문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2025년 WFM 임팩트 리포트와 라운드테이블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이 경험을 확장하여, 2026년 상반기 자립준비 청년 지원사업을 주제로 한 임팩트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립준비여성당사자, 지원기관, 연구자, 정책전문가, 후원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자립준비 청년 지원사업과 정책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은 지난 4년간 검증된 WFM의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고, 이를 개인 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이자 공공 자산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록은 지나온 길을 정리하고, 논의는 다음 걸음을 묻습니다. <We are Future Makers>가 만들어온 경험과 질문이 더 넓은 사회로 확장되어,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들의 미래를 밝히는 별빛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글 - 지원사업2팀 두애린



유한킴벌리 여성NGO장학사업

현장 속으로



연대와 변화의 리더십을 키워갑니다! 이화-유한킴벌리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과정 수료식

지난 여름, 2025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60명이 여성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6월 4일부터 7월 23일까지 제16기 이화-유한킴벌리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과정, 총 8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제16기 이화-유한킴벌리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과정은 급변하는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여성 활동가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여성주의 리더십, 페미니스트 미술, 환경 정의와 젠더 정의의 교차점, 인권의 역사와 젠더, 의사소통, 청년 여성의 페미니즘 정치 등으로 다양한 배움을 통해 실천과 연대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날 수료식은 한국여성재단의 노지은 사무총장과 유한킴벌리 배철용 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장관의 <모두를 위한 성평등과 여성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에 참여한 60명에게 수료증 수여, 24명의 개근상 시상, 우수 질문자상, 자기소개상, 댓글상 등을 시상하고 교육 과정에서의 의미를 돌아보며 소감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배철용 유한킴벌리 사회책임워크그룹 팀장

“NGO여성리더십과정의 처음 시작은 2008년이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유한킴벌리가 사회와 연대하는 방식을 대표하며,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지향의 연속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에 참여한 1,100여 명의 여성활동가 분들의 역할을 통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성평등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여성 활동가 여러분들에게 수고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노지은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여성활동가 지원은 가장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현장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성, 포용성을 고민하는 기업에게도 가장 전략적인 투자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미 현장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활동가가 있는 한 변화는 지속될 것이라고 믿으며, 여성활동가의 첫바리로 한국여성재단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유한킴벌리 여성NGO장학사업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며, 오랜 기부 파트너인 유한킴벌리와 함께 새로운 가치와 담론을 형성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과 장학생 및 여성활동가 네트워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 활동가의 역량,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과 함께하는 미래여성 NGO 리더십과정과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과정, 장학생 네트워크사업과 여성운동 아카데미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화-유한킴벌리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과정에 참여한 여성, 활동가들은 배움에 멈추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기에 더 나은 차별 없는 세상, 함께 돌보는 세상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사업을 이끌며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NGO장학사업과 참여할 예비 여성리더들에게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16기 이화-유한킴벌리 NGO 여성활동가 리더십 과정 수료자 소감 중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에너지를 쏟아내던 여성 활동가들이 교육에 참여하며 나 자신의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학습에 대한 갈증이 여성NGO장학사업을 통해 좋은 교육과 커리큘럼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해소 되었습니다.”

“여성NGO장학사업을 통해 많은 전문가와의 만남, 교육의 기회, 사고의 전환 기회를 만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글 - 나눔기획팀 성예현



수료증 수여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임팩트 조성사업

현장 속으로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합니다 임팩트 조성사업 활동 공유회 “함께 그린 변화의 지도”

지난 12월 4일, 2025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 사업 임팩트 조성사업 활동공유회가 한국여성재단 W나누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에는 아시아위민브리치 두런두런(서울),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광주), 사단법인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전남 목포), 양산YWCA(경남 양산) 등 4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임팩트 평가 전문기관 트리플라잇이 협력기관으로 함께했습니다. “함께 그린 변화의 지도” 활동공유회

에는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초대이사장의 영상을 시작으로 2025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임팩트 활동을 마무리하며 임팩트 조성사업의 추진과정과 4개 단체별 임팩트 활동 내용 및 성과를 나누고 “여성단체와 활동가에게 아름다운 변화”라는 주제로 함께 여성운동과 임팩트에 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임팩트 조성사업에 함께하며 여성 상담, 긴급 지원, 인권 교육, 젠더 폭력, 사이버 성폭력 대응, 시민 조직화, 국제연대와 ODA 의제화까지, 각자의 활동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현장의 경험을 근거로 사회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공통의 결심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변화이론을 함께 공부하고, 활동, 산출, 결과, 임팩트를 연결하는 언어를 스스로 만들어 온 과정 자체가 자신의 현재를 돌아보고 한국 여성운동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지 사업 보고의 자리가 아니라 풀뿌리 여성·인권 운동이 만들어낸 임팩트의 지도를 함께 확인하고, 그 다음의 좌표를 준비 하면서 그려가는 자리라고 믿습니다.”



조영미 배분위원

임팩트 조성사업은 여성단체가 해결하려는 문제와 방향성을 명확히 정의하고, 임팩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이루는 활동가들의 합의로 비전과 미션을 재정비하고, 조직 활동의 임팩트 스토리를 담은 내러티브북을 제작하여, 향후 대내외에 조직을 알리고 소통하는 데에 의미있게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단체별 임팩트 컨설팅, 기본 공통교육, 내러티브북 제작과 더불어 단체별 임팩트 활동을 위한 촘촘한 지원으로 조직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기초를 든든히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그린 변화의 지도, 담당자 이야기



광주여성인권상담소 방은경 팀장

“여성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성평등한 광주, 모두가 여성폭력을 사소하다고 여기지 않는 세상이라는 임팩트를 정의하고, 변화이론을 완성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구성원의 자기 이해와 관계를 돕고 팀워크 증진, 상호이해 촉진을 위한 수지에니어그램 워크숍을 진행하고, 임팩트 컨설팅에 전 활동가가 참여함으로써, 신규활동가와 기존활동가가 조직의 활동과 지향을 함께 고민하고 본인의 활동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막연했던 활동을 ‘보이는 언어’로 명확히 정의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임팩트 역량을 갖추 수 있는 소중한 1년이었습니다.”



시민법인 행복누리 오은주 사무국장

“성 평등 사회 구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행복공동체를 만든다라고 임팩트를 정의하고, 젠더 폭력·교제폭력·디지털 성폭력 등 모든 젠더 폭력에 대한 지원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간과 자원의 부족으로 활동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조직 내 워크숍 추진이 어려웠는데, 임팩트 조성 사업 참여를 통해 활동가들과 업무에서 나아간 우리의 활동 지향을 함께 고민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어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성예랑 상임이사

“향후 5년간의 두런두런 장단기 로드맵을 설계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한 때, 임팩트 조성사업은 시기와 내용 모두가 딱 떨어지는 운명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변화의 주체가 되는 정성스런 연대를 통해 안전하고 평등한 일상을 실현하는 세상이라는 임팩트를 정의하기 위해 조직 이사회, 운영위원회, 고문 등 리더십 뿐 아니라, 활동가, 자문위원이 모두 모여 우리의 활동 비전과 방향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임팩트 조성사업을 통해 활동가가 조직의 구성원으로, 지역 내 여성운동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본인의 활동을 재점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직 내 활동을 여성과 환경으로 구분하여, 양산 여성들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성평등한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세상과 양산 시민들이 생활속 실천으로 미래세대가 살기 좋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세상이라는 두 임팩트를 정의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해나갈 것입니다.”



양산YWCA 배정숙 사무총장



2025년 임팩트 조성사업은 각자의 영역과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더 나은 내일의 활동을 준비하는 4개의 여성단체와 함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2026년 임팩트 조성사업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국내 최초 여성학 교수, 6년의 시간 재단과 함께한 장필화 이사장을 만나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재단 장필화입니다



한국여성재단 4대 이사장으로

여성의 인권과 역량강화, 우리사회의 다양성 및 포용을 위한 돌봄 지원을 이끌고 있는 장필화 이사장님.

1984년 국내 최초 여성학 교수로 오랜 기간 후진을 양성하고 정부, 민간, 국내외 다양한 현장에서 여권 신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한국여성의 귀감이 되고존경받는 인물로 선정, 의암주논개상을 받기도 한 장필화 이사장님의 삶의 가치와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 **소식지를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인사말**

기부자 분들을 비롯해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재단이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식지를 보시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단으로 말씀주세요!

📌 **재단과의 첫 인연 & 재단에서 기억에 남는 일화**

재단 초대 이사장님인 **故박영숙** 선생님과 지금 고문님인 **윤후정**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스승님들이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의 교류를 통해 한국여성재단 설립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립대회 때 외국 출장 일정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였으나 재단 초창기부터 100인 기부 릴레이(지금의 성평등기금 모금캠페인) 이끔이로 활동하면서 발대식, 초청행사 등에 참여하며 여성재단과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화는, 2020년 이사장으로 취임 한 시기에 코로나19 펜데믹으로 발대식 등 주요한 오프라인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눔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이 위축되는 시기에 해외 기업인 샤넬 재단에서 연락이 왔고 온라인 zoom회의를 통해 샤넬재단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긴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3년 동안 여성운동 생태계 지원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위축되었던 여성운동 지원 기금이 확장되는 기회가 되었던 좋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또한 이사장으로 함께 하면서 재단의 지원사업 배분결정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배분 결정 과정에 배분위원회 외에는 그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공정성을 가진 재단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 **투철한 봉사 정신으로 사회 활동에 앞장서 한국 여성의 귀감이 되고 존경받는 인물이 선정되는 제 18회의암주논개상에 추대된 소감**

사실 논개에 대해서 깊게 알지는 못했는데 의암 주논개상을 받게 되면서 지역에서 고증한 인물의 배경과 이야기를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여성으로 나라를 위한 충절의 상징이 된 주논개님의 삶이 존경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참드문 여성 영웅으로 귀감이 되는 주논개님을 기리는 상을 받아 영광이었고 여성 인권 신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걸어온 길에 대한 격려와 응원을 담아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여성학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가치, 여성을 비롯해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우리사회의 필요한 변화**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치는 민주주의이고 민주주의는 여성이 완성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이 정치 참여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서 최근 젊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계엄령 때 집회를 이끈 대다수가 젊은 여성들이었고 과거의 집회와는 달리 축제처럼 응원봉을 활용하였습니다. 아기와 집회에 참여한 어머니는 난방 버스를 준비하여 버스 안에서 아기 기저귀도 교환하고 아기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남태령에서는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던 2030 여성들과 4050 남성 농민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벽을 허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 가는 대안적인 주체로서의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위계적이고 권력에 기반한 상하의 원리로 작동하는 사회 시스템이라면 돌봄과 포용의 삶이 체화된 여성의 DNA를 적용한 수평적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생태주의적 관점 또한 여성의 DNA가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주의라는 것이 단지 남자 여자의 분류가 아닌 약자, 소수자의 경험을 공감하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변화시키는 주체인 여성들이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결국 다양성, 포용성의 가치를 가진 인본주의이고 휴머니즘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향후 한국여성재단의 새로운 걸음과 역할**

새 정부 들어서 더욱 확실하게 세계 속의 한국, 우리의 경험과 자원을 나눠야 하는 위치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여성 지원 조직, 글로벌 기업 및 재단들과 활발한 네트워킹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단이 어떤 역할을 더 해나가야 할지 점검하고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AI 시대에 중요한 것이 데이터베이스인데 지금까지 기록되지 않은 여성들의 역사를 복원하며, 놓치면 안될 중요한 기록들을 찾고 공유하며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에 소외된 여성의 역사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해당 분야에 재단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화하는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기부란**

“기부는 가치를 담은 투표다” 기부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투표라는 것은 정치 선거에서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는 것도 브랜드를 응원하는 투표일 수 있습니다. 여성은 저평가된 우량주입니다. 미래의 한국을 책임지고 나갈 여성들에게 투표하는 것, 한국여성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가장 가성비 좋은 투자이고 가치 있는 투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장필화 이사장님의 한국여성재단과의 인연과 앞으로의 방향, 대한민국 1세대 여성학자로서의 고견을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약자를 아우르는 포용과 돌봄을 기반으로 한 우리사회 건강한 변화를 위한 고민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장필화 이사장님과 한국여성재단의 행보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암주논개상 추대

인터뷰 - 나눔기획팀 박정아

다큐멘터리 <네가 혼자 있는 동안에> 박소현 감독을 만나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성 예술인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출처: 영화웹진 리버스 / 김혜미

<네가 혼자 있는 동안에>
영화를 아시나요?

반려 고양이와 반려인, 돌봄을 부탁하고, 돌봄을 위해 방문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의 장소와 시간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는 고양이와 그들의 반려인 간 사이의 관계를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생기는 작고 소소한 순간들, 서로에게 주는 감정과 위로, 함께 있지만 혼자일 때 느끼는 감정들이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박소현 감독님과과의 진솔한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Q 박소현 감독님 소개와 근황

첫장편연출작인 <야근대신뜨개질>(2015)을 시작으로 <구르는 돌처럼>(2018), <애프터 미투>(2021) 등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영화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시각장애아동 미디어교육과 초·중·고 영화 제작 교육을 시작으로 제도권과 비제도권, 다양한 환경의 청소년들과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등을 해왔습니다. 요즘은 2024년에 제작한 단편 <네가 혼자 있는 동안에>의 장편 작업과 다음 작업의 촬영을 막 시작했지만 16년째 반려하고 있는 고양이 보리와 메루가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 거의 24시간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작업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Q 한국여성재단과의 인연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2014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으로 저의 첫 장편 연출작인 <야근 대신 뜨개질> 제작을 지원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작업을 했던 <고양이 돌봐드립니다>(당시 제목)가 몇 년 동안 제작 지원에서 낙방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양이들의 투병 생활이 시작돼 제 일상과 삶도 매우 불안했습니다. 2024년 여성 사진·영상 예술인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네가 혼자 있는 동안에>라는 제목으로 변경하여 단편 버전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후에 영화는 제7회 서울동물영화제 특별전에서 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네트워킹 자리였습니다. 준비해 주신 도시락과 간식이 너무 맛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여성 창작자분들과 만나고 서로의 작업 세계를 공유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한 프로그램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타로 카드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던 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Q <네가 혼자 있는 동안에> 제작 과정과 일화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된 때, 교육 일정들이 취소 되면서 '고양이 돌봐드립니다'라고 홍보물을 만들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이는 노모 '니모'의 반려인으로부터 돌봄 의뢰를 받았습니다. 1인 가구로 30대 후반의 여성인 니모 반려인은 니모의 식사방법, 주의해야 할 점, 놀아주는 법, 약 주는 법 등 니모에 대해 알려주었고 이 연결의 과정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다양한 고양이들이었지만 나이가 많아 한 두 가지 이상의 약을 먹어야 하고,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노묘들이주를 이루었고, 그들의 반려인들은 다양했지만 비정기적인 일들을 주로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고양이들과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니, 무수히 많은 연결로 이루어진 돌봄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가족과 일상을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돌봄을 위해 구축한 상호 돌봄 장소인 집과 시간들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돌봄은 짧게는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되는 집도 있었지만, 3주, 한 달 이상 돌봄을 한 집도 있었습니다. 모든 고양이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처음 방문했을 때 이불 속에 숨어 있거나, 하악질을 하던 고양이들과도 관계가 형성된 후 촬영을 진행하게 되어 영화 속에는 모두 마중도 나오고 반겨주며 저를 자연스럽게 대하는 모습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Q 인생의 가치&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일상에서의 관계와 연결인 것 같습니다. 김영옥, 류은숙님이 함께 쓰신 <돌봄의 상상력>(2024, 코난북스)에서도 강조하고 계신 부분인데, 영화를 만들며 제 스스로가 누군가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제가 기록한 세상이 제가 생각하지 못한 누군가들과 또 연결되기도 하고, 그 관계와 연결들을 계속 기록하고 싶습니다. 그 경험들이 순환되며 일상에서 또 다른 존재들과 연결되며 제 일상을 일구고 동력을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 영화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연결의 힘을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2026년 여성 사진·영상 예술인 지원사업, 여성 예술인들에게 응원 메시지

여러분, 엄혹한 세상에서 어떻게들 작업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여성주의 안에서 지지와 환대를 통해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여성 창작자분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자극과 영감의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Q 기부자, 파트너 기업, 단체분들에게 한마디

2014년에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으로 제 첫 장편 영화를 만들고, 극장 개봉으로 연결되어 관객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영화를 발판 삼아 지금까지 꾸준히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벽을 느끼고 있을 때, 지금의 '여성 사진·영상 예술인 지원사업' 덕분에 작업을 이어갈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많은 여성 창작자분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주의 안에서 지지와 환대를 통해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열정과 자신만의 소신을 갖고 영화 제작과 미디어 교육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소현 감독님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박소현 감독님을 비롯한 모든 여성 예술인들의 아름다운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며, 2026년에도 여성사진 영상예술인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지원사업과 다양한 여성 예술인들의 활동에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 나눔기획팀 성예현

재단활동소식 2025년 7월-12월



자립준비 여성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We are Future Makers 4기 클로징 파티

8월 30일, 지난 6월부터 10주간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30명의 We are Future Makers 4기 참여자들이 클로징 파티로 함께했습니다. 함께 나아갈 미래를 그리며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수료증을 건네며 훈훈하게 클로징 파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성가장 치과진료 지원 해피빈 모금

여성건강지원사업은 여성 가장과 여성 공익 단체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12월 의료 사각 지대에 놓인 취약 여성가장 대상의 치과진료 지원을 위한 해피빈 모금이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으로 총 625건 참여, 모금액은 1,853,300원이 모였습니다. 치과진료분야는 충치치료, 임플란트비 등 여성가장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 "딸들에게 희망을" 사원참여 캠페인& "힘내라 딸들아" 기부금 전달식

11월 17일, "딸들에게 희망을" 사원참여 캠페인 기부금 및 생리대 100만 패드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유한킴벌리는 2005년부터 약 20년 동안 사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평등 기부문화를 꾸준히 확산 해왔습니다. 또한 "힘내라 딸들아" 생리대 기부는 2016년부터 시작해 10년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위해 누적 1,218만 패드를 지원해 왔습니다.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는 앞으로 여성의 더 나은 삶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2025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활동공유회

11월 20일, 2025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활동공유회가 열렸습니다. 한 해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성, 인종, 나이 등으로 차별 받지 않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 써온 9개 단체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사업 성과를 나누고 활동을 공유하며 서로가 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립준비 여성 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We are Future Makers 2025 홈커밍 파티**

11월 21일, We are Future Makers 홈커밍 파티가 진행 되었습니다. 산타가 찾아오는 미리 크리스마스 컨셉으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각자의 걸어 온 길에 대한 회고와 새로 나아갈 길에 대한 다짐을 통해 참여자들의 진솔한 마음으로 서로 나누며 응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해피빈 모금

11월 25일,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 폭력을 멈추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해피빈 모금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총 2,899건 참여, 모금액은 9,003,500원이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은 매년 SOS기금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직장 내 성희롱 등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며 이번 해피빈 모금함을 통한 기부금은 2026년도 여성폭력 대응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여성리더연합,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업무 협약 및 한여리 기금 전달

11월 25일, 한국여성리더연합과 성평등 사회를 위한 업무 협약 및 한여리 기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전문가와 기업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 하고 여성 임파워먼트와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조성한 한여리 기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행동하고 나누는 리더십의 가치를 담아 다양한 여성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는 활동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5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결과보고회

12월 17일, 2025년 한부모 이주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5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한부모 이주여성의 정서회복, 양육안정, 자립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활동한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총 64가정(이주여성 64명과 자녀 85명)이 한부모 이주여성 간 네트워크를 형성, 양육 및 생활기술 역량강화, 디지털 및 취업 교육 제공, 심리·정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하나은행, 유산기부 활성화 업무 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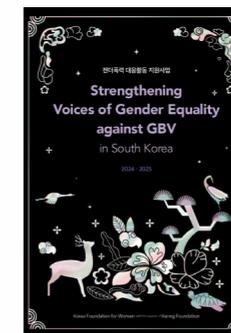
12월 18일, 한국여성재단은 하나은행과 유산기부 참여와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통해 유산기부를 원하시는 기부자분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산기부를 통해서도 여성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위한 나눔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발행



**We are Future Makers
임팩트 리포트**

2022년~2024년, 자립 준비 여성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We are Future Maers 1기~3기의 운영과정과 결과를 분석한 임팩트 리포트가 발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여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각자가 경험한 변화와 배움의 내용들이 알차게 구성 되어 있습니다.



**2024/2025 젠더폭력
대응활동 지원사업
브로슈어(ENG)**

2024~2025 젠더폭력 대응활동지원사업브로슈어(2024~2025 Strengthening Voices of Gender Equality against GBV in South Korea Brochure)가 영문으로 발행 되었습니다. 사업 소개,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의 주요활동과 소감 및 변화된 결과 등이 담겨 있습니다.

기부자 명단 2025년 7-12월

개인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TA NATHAN T ZHEMANOVA

ㄱ

강대인 고영주 금진주 김명동 김생기 김애정 김운우 김중순 김한별
강덕순 고영진 길규빈 김명선 김선미 김양숙 김윤주 김주환 김한솔
강도성 고윤숙 김가연 김명숙 김선영 김양지영 김윤철 김주희 김행욱
강명신 고재순 김가은 김명일 김선옥 김언정 김윤희A 김준승 김행민
강민지 고지애 김갑순 김명진 김선호 김엘리 김윤희B 김지나 김형미
강범희 고지영 김건우A 김명혜 김선희A 김연덕 김은경 김지나 김현미A
강병욱 고지원 김건우B 김명화 김선희B 김연례 김은미 김지연A 김현미B
강보길 고채우 김경덕 김명희 김성규 김연미 김은송 김지연B 김현빈
강보승 공옥분 김경란 김모란 김성근 김연수 김은숙A 김지영 김현숙
강상모 공태숙 김경미 김민희 김성례 김연화 김은숙B 김지원A 김현아
강수정 광문섭 김경숙A 김미경A 김성분 김연희 김은순 김지원B 김현영
강순애 광속희 김경숙B 김미경B 김성숙 김영란 김은실 김지현A 김현기
강순자 광영선 김경애 김미숙 김성원 김영민 김은아 김지현B 김형기
강영아 광은숙 김경임 김미순 김성현 김영민 김은원 김지현C 김혜경
강예령 광지원 김경혜 김미애A 김세리아 김영선A 김은정A 김 진 김혜리
강예린 광지혜 김경화 김미애B 김세화 김영선B 김은정B 김진근 김혜미
강원화 구경애 김경희A 김미영 김소양 김영신 김은주 김진미 김혜숙A
강은결 구민수 김경희B 김미자 김솔희 김영주 김은진 김진성 김혜숙B
강은나 구상권 김경희C 김미주 김수경 김영원 김은희 김진수 김혜영A
강은비 구서영 김광수 김미향 김수민A 김영재 김미향 김진숙 김혜영B
강은숙 구숙경 김광재 김미희 김수민B 김영주A 김이경 김진옥 김혜은
강재진 구옥순 김광하 김민경A 김수빈 김영주B 김인선 김진용 김혜정
강정영 구자민 김권호 김민경B 김수연A 김영혜 김인숙A 김진일 김효호
강지훈 구춘자 김귀순 김민정 김수연B 김영화 김인숙B 김진태 김희성
강태우 구태우 김귀옥 김민서 김수연C 김예은 김인순 김진희A 김희선
강충남 구효민 김규례 김민재 김수영D 김예지 김인영 김진희B 김효정
강중완 국미애 김나리 김민정 김수정 김모옥 김민준 김차순 김희경A
강주연 국영자 김나연 김민주A 김수진 김옥경 김잔디 김창근 김희경B
강지연 권경아 김나연 김민주B 김수현A 김옥은 김장림 김창연 김희성
강태인 권동휘 김남희 김민지 김수현B 김요한 김재구 김재원 김희연
강현숙 권민지 김대숙 김병관 김수현C 김 용 김재민 김채은 김희윤
강현철 권보현 김대숙 김병두 김숙경 김용강 김재삼 김철진 김희정A
강혜규 권새롬 김대현 김보라 김숙연 김용덕 김재연 김춘지 김희정B
강혜란 권순옥 김덕선 김보영 김숙주 김우향 김재춘 김춘희
강혜선 권순희 김덕일 김보민 김숙희 김은비 김정란A 김태연
강혜숙 권애원 김도수 김복열 김순근 김은주 김정란B 김태연
강혜정 권영빈 김도이 김봉일 김순덕 김원모 김정선 김태영
강호간 권예나 김도협 김보기 김순연 김원용 김정순A 김태욱
강호민 권은숙 김도희 김상분 김순영 김유경 김정순B 김태욱
건강여성모임 김동식 김성숙 김수현C 김슬지 김유미A 김정은 김태환
고경표 권정순 김동휘 김상환 김승혜 김유미B 김정임 김태훈
고대욱 권주미 김둘순 김상훈 김신혜 김유미C 김정자 김필남
고명화 권진희 김득현 김상희A 김신효정 김유진 김정현 김하경
고명희 권태선 김롤라 김상희B 김이라A 김은경 김정혜 김하연
고민정 권태영 김리원과리강단A 김이라B 김윤모 김정화 김하영
고범진 권태완 김리원과리강단B 김애령 김윤수A 김정희 김하진
고선주 권태정 김리원과리강단C 김애숙 김윤수B 김종덕 김하나

기부자 명단 문의: 나눔기획팀 02-336-6463

*집계기준일(납부일) 2025.07.01~12.31

ㄴ

나석주 나성주 나윤경 나인영 나진희 나혜림 남미용 남미현 남영주
남인순 노무현 노선숙 노수현 노옥련 노정아 노지은 노형수 노혜진

ㄷ

도경희 도남래 도이현 도인정 도인정 동고은 두석호 두애린

ㄹ

류순형 류영선 류유선 류은제 류인혜 류춘희 류현우

ㄴ

마경희 맹혜정 모혜자 문경환 문시윤(문의석) 민소은 문인선
마정윤 명재찬 모희현 문경희 문영호 문재호 민욱기 문정곤
맹지열 명진숙 문경란 문금주 문은영 문현아 민지혜 민영선
맹필수 모지은 문경숙 문소윤 문재용 문희영 민현주

ㄷ

박가을 박득숙 박삼숙 박수미 박옥희 박종대 박충순 배선희 백순화
박가현 박명수 박상진 박수원 박용분 박주선 박태경 배상신 백승희
박건혜 박명숙 박상현 박주진 박용선 박주연 박 현 배소영 백연아
박경림 박명자 박석자 박수현A 박용호 박준용 박현순 배은우 백영경
박경태 박미나 박석준(82메이저)박은위 박지성 박현자 배은주 백예린
박경희 박미연 박선미 박수현B 박은정A 박지연 박현화 배이화 백지수
박규천 박미영 박선의 박송진 박은정B 박지영 박현희 배중학 백철철
박규리 박미지 박선희 박애경 박은희 박지원가족박형주 배철용 백희선
박규태 박미화 박성택 박애리 박이례 박지환 박혜란 배한영 변성윤
박근영 박미희 박성혜 박영남 박정곤 박지효 박혜선 백경자 변영선
박기남 박민성 박성희 박영삼 박정례 박진선 박혜숙A 백경흔 북금희
박기순 박민정 박세경 박영주 박정아 박진우 박혜숙B 백상연 봉태규
박나리 박민혁 박소연 박영준 박정자 박찬민 박효숙 백선숙
박동렬 박민희 박소연 박영희 박정희 박찬주 방윤혁 백선자
박동연 박사용 박소진 박옥필 박종남 박채은 배기옥 백성원

ㄷ

서동규 서정은 석미화 손은수 송영호 신민성 신은섭B 심숙경
서동인 서정호 석영미 손지형 송은영 신민자 신은숙 심영희
서동진 서정희 석영애 손진화 송인범 신봉균 신의경 심우용
서민정 서조아 석용원 송기욱 송정미 신봉남 신인영 심지현
서 숙 서지연 선은주 송기원 송정민 신소라 신재연 심정학
서승복 서지현 선진국 송다영 송정애 신소영 신종은 심현구
서옥경 서지희A 설영수 송명순 송준용 신여명 신주진 심현숙
서우찬 서지희B 성경애 송미령 송혜영 신영미 신지열 심혜경
서은미A 서현숙 성정현 송민수 송호선 신용선 신진남
서은미B 서혜정 성형주 송상희 송호중 신원영 신창재
서은영 서희숙 손경화 송승원 손수정 신유정 신필규
서점순 석나리 손순연 송영미 신가영 신은경 심누리
서정민 석명수 손압구 송영순 신미순 신은섭A 심복길

ㅇ

안건희 여미숙 유보람 윤진영 이명호 이성현 이영주 이재숙 이혜리
안경모 여진경 유선기 윤혜술 이문상 이소영 이영희A 이재윤 이현경
안기선 연미자 유선희 윤현주 이문숙 이소희 이영희B 이재인 이현순
안미영 염미정 유성민 윤혜린 이미경A 이승은 이예은 이주규 이현재
안미화 염미화 유소빈 음중성 이미경B 이승희 이예은(광주예술고 사부작공남)
안병억 염정연 유숙자 이강란 이미경C 이수련 이옥의 이정민A 이현혜
안서영 예은숙 유승완 이강수 이미란 이수미 이옥자 이정민B 이혜경
안소정 오가영 유재경 이건정 이미숙 이수빈 이완정 이정숙 이혜민
안수란 오경숙 유재현 이경선 이미영 이수연 이용갑 이정원A 이혜영
안순화 오금칠 유정미 이경순 이박혜경 이수옥 이용선 이정원B 이혜희
안승용 오금식 유정신 이경선 이병주 이수은 이용성 이정인 이호경
안승옥 오동식 유정원 이경준 이복순 이수이 이용일 이정자 이호선
안은성 오명순 유정희 이경진 이봉찬 이수정A 이우진 이정현 이홍재
안인영 오명옥 유지숙 이경후 이상덕 이수정B 이원선 이정화 이효대
안재민 오세연 유지은 이경희A 이상민 이수정C 이원식 이준순 이효숙
안종희 오솔담 유해미 이경희B 이상아 이수진 이규경 이주연A 이효진
안준식 오수정 유현정 이계경 이상엽 이수현 이우정 이주연B 이홍재
안지현 오영미 유혜경 이광미 이상우 이수희 이우진 이주은 이희원
안필락 오영수 유혜윤 이국화 이상은 이숙인 이우현 이주홍 이희정A
안현희 오영실 유한구 이규선 이상원 이숙진 이윤경 이주희 이희정B
양민석 오윤경 유희정 이그림 이상은A 이숙향 이윤성 이지수 이희준
양민주 오정순 옥성희 이근정 이상은B 이순오 이윤재욱 이지연 임경숙
양서향 오정호 윤경숙 이근주 이상익 이순현 이윤지 이지영A 임경자
양서연 오춘희 윤계원 이금복 이상태 이슬기 이은규 이지영B 임규태
양예리 오현석 윤말이 이금순 이상현 이승수 이은자 이지유 임나영
양옥경 왈도(WLDO) 이금임 이상화 이승은 이은정A 이지은 임덕희
양윤규 우남선 윤미연 이기연 이샘이 이승준 이은정B 이진경 임성원
양지호 우상숙 윤미재 이갈현 이서연 이아람 이은주 이진아 임성은
양진태 虞书欣(우서흔) 이나경 이서영 이아름 이은행 이진주 임순영
양태경 우지혜 윤비연 이남순 이서현 이만소영 이은희A 이재연 임승희
양현식 원미혜 윤선정 이다경 이선미 이애란 이은희B 이재원 임영주
양현정 원민경 윤성희 이덕혜 이선민 이양주 이은희C 이철수 임우경
양호성 위소희 윤영배 이도영 이선영 이연옥 이은희D 이춘아 임은주
양후진 유가영 윤옥경 이도형 이선주 이연이 이이녀 이춘희 임인숙
양희영 유경모 윤유정 이동선 이선혜A 이연지 이이섭 이치우 임지연A
양희진 유경미 윤은정 이동선 이선혜B 이연창 이인숙 이태형 임지연B
임미영 유경화 윤인숙 이도하 이상아 이연하 이인숙 이택중 임진식
엄서영 유근아 윤자영 이도훈 이상원 이영미A 이인자 이택호 임채홍
엄선애 유나연 윤정희 이라영 이상은 이영미B 이인화 이파라 임필립
엄태호 유도훈 윤종원 이루리 이상일 이영순 이임조 이필영 임현주
앤하이픈선우A 윤종철 이루오 이상자 이영우 이임주 이하영 임호근
앤하이픈선우B 윤진석 이명선 이성현 이영자 이자영 이한들

ㅈ

장애희 장윤호 전예진 정란희 정시연 정인하 정혜경 조연우 조혜륜
장연진 장인선 전우용 정미모 정아름 정재실 정혜상 조영한 조호정
장연화 장재철 전유미 정미영 정아현 정재현 정호지 조옥라 조홍식
장영미 장정훈 전은서 정미자 정영애 정점순 조경미 조윤세 주경은
장영석 장정희 전진영 정미화 정영애 정정수 조경숙 조윤채 주성모
장영임 장종표 전진우 정민수 정영지 정지아 조권중 조울선 주 영
장영화 장주연 전해림 정상철 정예진 정지영 조기한 조인자 주혜영
장예지 장지영 정강자 정서연 정용숙 정지원 조나연 조임중 지상구
장숙영 장철경 정경숙 정선경 정용주 정지현 조명숙 조정아 지속자
장애희 장태진 정경아 정선지 정원영 정진경 조 미 조정희A 지윤주
장연진 장필화 정경옥 정성녕 정원윤 정진주 조배원 조정희B 진민경

장연화 장혁재 정경희 정성화 정유경 정차선 조선혜 조준경 진효주
장영미 장현진 정구선 정세은 정유연 정찬영 조성덕 조지원
장영석 장혜숙 정근하 정소성 정유진 정창근 조성민 조진경
장영임 장희연 정길석 정수미 정윤현 정창남 조성숙 조진희
장영하 전대근 정길심 정수진 정은희 정정자 조성희 조천기
장예지 전민경 정다운 정수희 정은정 정택용 조수용 조춘이
장우주 전부숙 정다정 정순재 정은자 정현경 조성연 조 형
장원호 전양숙 정도균 정승호 정은화 정현미 조아라 조혜련
장윤선 전영미 정동향 정승희 정이주 정현석 조연숙 조혜륜

ㅊ

차가현 채용석 최광식 최미정 최선혜 최영아 최은경 최정민 최홍빈
차경애 채은경 최남미 최 민 최성철 최영준 최은영 최정주 최환호
차승현 채현자 최동길 최상귀세 최수경 최영준 최은정 최준석 최효리
차예송 천소연 최라윤A 최새은 최수원 최옥숙 최은주 최진희 최효정
차인순 최경수 최라윤B 최서영 최수정 최원석 최은희 최현숙 최효진
차재명 최경애 최 리 최석준 최순복 최원주 최인이 최현호 최희경A
차혜민 최경원 최영민 최선미 최시현 최유경 최정유 최형미 최희경B
채문희 최경원 최문영 최선아 최신아 최유진 최정윤 최형철
채수경 최경일 최미애 최선필 최양호 최유진/최유빈 최호식

ㅊ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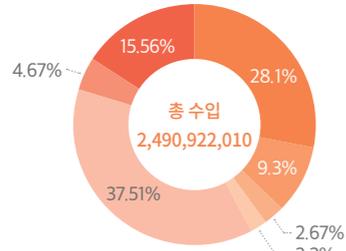
하미선 한수빈 함영진 허신훈D 허준식 홍승택 홍지나 황선미 황혜림
하민정 한원경 허남재 허신훈E 황기태 홍영애 홍지민 황성철 황훈영
하순원 한일순 허남혁 허신훈F 홍미리 홍영희 홍지창 황소연 후한원
하영선 한정빈 허미영 허우석 홍미선 홍예영 홍현옥 황 윤
하자운 한정연 허선이 허윤희 홍미영 홍예진 홍효정 황윤옥
하정경 한정옥 허소연 허은실 홍미정 홍은채 홍희정 황은주
한명희 한지혜 허소정 허정은 홍미희 홍은희 황경주 황인섭
한새연 한창호 허순희 허철중 홍상보 홍진숙 황금희 황정혜
한선희 한태희 허신훈A 허혜영 홍석보 홍지우 황다혜 황준협
한 솔 한혜경 허신훈B 헤미유정 홍석준 홍중우 황서영 황지원A
한송이 한혜린 허신훈C 험가현 홍성아 홍주연 황석민 황지원B

GLOBALGIVING기부자 롯데카드포인트기부자 무기명기부자 문자기부자
해피빈기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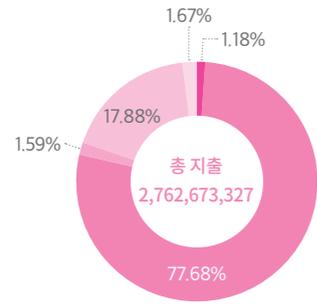
기업/단체

Kering Foundation 경기여고동창회 교보생명보험 교보자산신탁
글렌꾸림 끌리메 농협은행(서고동지점) 대한간호협회 덕수엔지니어링
동서식품 두산매거진 라파스 마쿠라 미래포럼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스터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삼성전자 생활건축 건축사사무소
샤넬재단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수키도키
수학바로봄 숙명여자대학교제57기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선영 신우카피
아시아인마을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여성시대오아시스내한달글
여성환경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유한킴벌리 제이피모간 체이스 은행
서울지점 줌마네 커넥블 테마노래연습장 티르티르 팀에픽소드
하나금융그룹 하이룸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여성리더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호성투어

재정보고



- 기업지정기부금 28.1%
-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9.3%
- 여성건강지원기부금 2.67%
- 특정명의기금 2.2%
- 일반기금 37.51%
- 후원금 4.67%
- 기타수입 15.56%



- 모금사업비 1.18%
- 배분사업비 77.68%
- 홍보사업비 1.59%
- 경상비 17.88%
- 시설비 1.67%

총 수입 **2,490,922,010 원**

항목	내용	금액 (단위: 원)
● 기업지정기부금	기업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 100인기부 릴레이 기부 ·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기) · 일터(가게)나눔 · 고사리손캠페인 · 카드포인트 기부 · 성평등기금모금캠페인	700,000,000
● 성평등사회조성기부금		231,594,786
● 여성건강지원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66,406,200
●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54,720,000
● 일반기금	프로스페라기금, 해피빈, 사넬 외 다수	934,428,095
● 후원금	협찬금 등	116,285,924
●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환차익 등	387,487,005

총 지출 **2,762,673,327 원**

구분	항목	내용	금액 (단위: 원)
고유목적사업비	● 모금사업비	후원의밤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32,647,550
	● 배분사업비	1. 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 조성사업, 수시지원사업 여성운동생태계조성사업 젠더폭력대응활동지원사업	
		2. 여성인권보장 여성건강지원사업 봄빛장학금 여성청소년생리대지원사업	
		3. 여성 empowerment 여성NGO장학사업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임팩트조성사업 자립준비여성청년역량강화지원사업	2,146,043,506
		4. 다양성존중 및 돌봄사회 지원 고사리손기금지원사업 양육미혼모지원사업 이주여성경제적자립지원사업 한부모이주여성역량강화지원사업 이주여성리더발굴지원사업 싱글맘나다움+지원사업	
5. 프로스페라기금 사업			
운영비	● 홍보사업비	소식지, 연차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43,882,672
	●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493,848,758
	●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46,250,841

기부안내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12월, 각계각층의 리더와 124개의 여성단체가 뜻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비영리 공익재단입니다.

성평등 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모금과 배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평등기금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국여성공익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W기금

모든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재단 활동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주제별 사업기금

여성안전 및 폭력 예방, 여성건강지원, 해외여성청소년 자립 및 교육 지원을 위한 기금입니다.



특별기념일 나눔

돌, 생일, 결혼, 추모 등 특별한 기념일에 나눔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기부

기업 사회공헌, 임직원 나눔, 현물 기부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부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실천입니다.

온라인 기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 접속, 기부안내 클릭 후 신청

나눔계좌(무통장입금) 예금주: 한국여성재단 | 농협: 369-17-005283 | 국민: 079-01-0405-971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창립 이래 '딸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마음껏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힘, 여성입니다”라는 확신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재단은 모금과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있어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T. 02-336-6364 F. 02-336-6459 E. womenfund@womenfund.or.kr H. www.womenfund.or.kr